News p/2

靑, 중남미 순방 중간결산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2일 수요일

Entertainment p/18

여동생 그룹 줄줄이 데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가

동반성장위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상생법' 변칙 지금 알았다"

중소 적합업종 지정만 해놓고 대기업 침투 '나몰라라'

동반성장

"소지품·신체수색 다시 시도" 이마트 노조 인권위에 진정

밤 12시에 결심 "자진사퇴 맞아?"

서아프리카의 고통 — 일반사진 퓰리처상 뉴욕 컬럼비아 언론대학원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일반 사진부문 퓰리처상에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현장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아낸 뉴욕타임스 팀을 선정했다. 사진은 해당 부문 수상작들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10일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서 적십자사 요원들이 에볼라 사망자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는 동안 울부짖는 유족의 모습(위), 지난해 9월 5일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에볼라 치료센터의 활동을 찍은 사진(아래). /연합뉴스

EU '난민선 사태' 긴급 정상회의

유럽연합(EU)은 지중해 난민선 사태 대책마련을 위해 오는 23일(이하 유럽 현지시간)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유럽연합은 장관회의를 열어 지중해를 건너다 침몰한 아프리카 난민선 구조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아프리카 현지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난민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관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난민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유럽연합이 긴급히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배경이다.

이날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9일 지중해에서 발생한 난민선 침몰사고의 사망자가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몰타는 새로운 난민선 2척이 또 조난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지중해, 끝없는 죽음의 행렬 그리스 당국은 20일(현지시간) 로도스 근해에서 아프리카 난민선 수십명이 탄 목선이 좌초해 3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남성이 난민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위), 난파선 전해 상공으로 헬리콥터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아래). /연합뉴스

"정상외교, 중남미 진출 문 열어"

靑, 중남미 순방 중간결산

"3년째 골다리기를 하던 콜롬비아 바이어가 이듀자(영어교재업체)의 중남미 경제사절단 참가 소식을 듣고 2년간 최소 25만달러 매출을 보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했다. 바이어는 품질에 만족하면서도 신뢰도 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성과를 중간결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업체들에게 중남미 진출의 문을 열어줬다는 자체 평가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를 거쳐 페루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듀자는 페루 상담회에서 2년전 만났다가 협의가 중단됐던 바이어를 다시 만나 페루 국제학교 영어교재 납품 건을 따냈다. 10만달러 규모로 전해진다. 구매를 검토 중이던 에콰도르 바이어도 사절단 방문 소식을 듣고 계약을 요청했다고 한다. 방문국이 아닌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입'으로 행세하는 제3국 업체까지 움직였다고 한다. 에콰도르 최대기업 옐루라 그룹은 사절단 방문 소식을 듣고 페루까지 찾아와 피엔이시스템즈와 구매 협상을 진행했다. 피엔이시스템즈는 고출력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개발한 업체다. 충전속도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다. 에콰도르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등 위해 2016년 전기차 1만5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옐루라 그룹은 이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국회를 방문, 아나 마리아 솔로르사노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대십자훈장'을 받고 훈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래는 루 리미 워라튼 호텔에서 열린 한·페루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장을 방문,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중심의 MOU 20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 112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철력의료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으며 페루의 국가발전계획 이행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軍 '하루 걸러 하루' 성범죄

군 자정능력 회의론 거세 "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실시된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21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군에서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군과 정부는 강력한 성범죄 대책을 잇 다퇴 내놓았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어날 국방부 예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달 말 전역하는 A씨는 지난달 B씨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장소 옆 방에서 쉬던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고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군 역시 성군기 위반 사건이 빈발하자 잘못을 저지른 간부를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범영은화해 신뢰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도려낼 수 있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외부의 견제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내가 얘기하면 이병기 실장은 죽어요"

'成 리스트' 다음 타깃 유력…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거취는?

이완구 총리 다음은 누구인가.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홍준표, 이완구 등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중앙정부의 현직인사는 이 총리를 제외하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단 한 명이다. 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야당의 다음 타깃은 이 실장이 될 전망이다.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총리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실장의 차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 유무에 불과하다. 이 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성 전 회장과 140여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 실장은 언론에 "전화가 왔는데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피할 일이 있느냐. 그게 다"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었고, 오는 전화를 받은 데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거짓 해명으로 곤욕을 치른 이 총리와는 다른 대응이었다.

이 실장은 지난 10일 '성완종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은 결백하니 도와달라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데 대해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 전 회장은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실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고 뭐 뭐 (얘기)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라고 언급을 피했다. 또 "아이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러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때가) 일본에 가 있고 그런 때냐'는 질문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지 오래됐으니까요"라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 보이구요"라고 계속 답변을 피했다. 이 실장은 2013년 5월부터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한 2014년 7월까지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의 사퇴는 공정한 수사의 시작"이라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 핵심인사들이 (리스트에) 줄줄이 적시된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총리공관 발코니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이완구 총리(아래)와 청와대 회의실에 앉아 있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위) /연합뉴스

총리 빠진 국무회의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공관에 칩거하자 21일 국무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최 부총리가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대신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최 부총리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안건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갔고, 회의는 20분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연합뉴스

李 총리 자진사퇴 맞나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사퇴를 두고 21일 뒷말이 무성하다. 이 총리 사퇴 소식이 전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사퇴를 결심했다면 다음날 오전 사퇴의사를 밝히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이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겠다"고 거듭 말해왔다.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새누리당이 이 총리 사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극심한 민심 이반에 위기를 느끼고 '선 사의표명 후 처리' 방침을 결정,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페루 리마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마는 서울보다 정확히 14시간이 늦다.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 실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총리는 당청 간의 급박한 움직임에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총리는 퇴근 때까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이 처음 보도된 시간은 자정을 넘긴 직후였다. 그 사이에 새누리당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 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이 총리에게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총리의 사의는 중간 의견 교환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해졌는지, 아니면 이 총리 본인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전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총리가 직접 전화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말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서이기자

총리실 한숨 "또 청문회 준비해야 하나"

이완구 총리가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았다. 총리실은 박 대통령이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가운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인 총리실은 국정 업무 차질을 우려하면서도 또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기운이 빠진듯한 모습이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실세 총리' '책임총리'를 주장한 이 총리는 국정을 꾸려갈 '힘있는 총리'로 여겨졌다. 그런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게 되자 총리실은 안타까운 분위기다. 총리실 내 "열심히 해보자"던 분위기가 조성되던 차에 이 총리가 낙마하게 됐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했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임 총리가 인선이 되면 당분간 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벌써 6번째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용준·정홍원·안대희·문창극·이완구 등 총 5명의 총리 지명자 가운데 정홍원 전 총리와 이완구 총리만 실제 총리가 됐고, 이 가운데 임기를 마친 총리는 정 총리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관계자는 후임 총리 인선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상황이 정말 큰 일"이라면서 "귀인이 나타나서 5월 중에는 총리실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리실 직원은 "현재 상당히 많은 개혁 과제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후임 총리로 힘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분이 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분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통제 하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총리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미란기자

출국하는 황우여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귀국하자 황 부총리가 출국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Mr. Secretary General, why did you go to Japan?

Former Secretary General Kim Gi Choon, who is on the 'Sung Wan Jong list' causing dispute regarding explanation for lying, is also making controversy because of the departure to Japan. The suspicion arose if he left Korea to avoid the prosecution's summon. The departure of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was revealed 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onference on the twentieth. A member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informed the departure of the Secretary Gener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hang Gyo An, and requested the submission of the departure information. Minister Whang refused his request because of personal privacy. But the departure of Secretary General Kim has already spread. The day before his departure a documentary journalist An Hye Ryong posted on his facebook saying "Former Secretary General Kim Gi Choon is heading to Tokyo. It seems like his wife is abiding with him. But why is he going to Japan?" Journalist An got on the plane ANA 0864 heading to Tokyo the day before at 12:35 pm. Secretary General Kim denied the avoidance suspicion and said he will come back that day. But the criticism is aimed toward the police who didn't take action in prohibiting his departure. The criticism toward Secretary General Kim, who was former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the minister of justice is fierce as well. And that is because there is no way he couldn't have known about the departure restriction.

/메트로디지털뉴스팀

Chris Kim(김물경) 정리

김실장님, 일본엔 왜 가셨어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뒤 거짓말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으로 출국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의 출국 사실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김 전 실장의 출국 사실을 알리며 출국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황 장관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출국에 대한 증언이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전날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인 안혜룡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간다. 부부 동행인 듯. 근데 이 양반은 왜 도쿄에 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안씨는 전날 오후 12시 35분 김포발 도쿄행 ANA 0864편을 탔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오후 귀국 예정이라며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출신인 김 전 실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출국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모를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IMF의 두 번째 경고 '구조개혁에 나서라'

김학성의 세상보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에 잇따라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IMF는 지난주초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4.0%에서 3.7%로 낮춘데 이어 3.3%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하향조정한 배경에 대해 "가계소비와 투자심리가 취약해지고 있고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위험 가능성도 경고됐다. 이런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와 가진 연례협의에서도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2월때와 달리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성장세 둔화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주된 이유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을 꼽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올해 6.8%로 전망, 중국 정부의 방어선 7%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실제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7.0%에 그쳤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따로 올들어 수출이 석달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내적으로도 불안한 형국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이 24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다음 달 단위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늦어도 6월 초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 일각에선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8%를 고수하면서 경기낙관론을 설파할 때인가. 최근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종 실물경기 지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 활황이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유동성에 따른 상승세이기 때문에 자칫 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성완종 게이트로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주말 IMF는 이달 들어 두번째 경고를 보냈다. 최고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정책만으로 추가적 성장세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구조개혁과 인프라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단기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구조개혁에 과감히 나서라'는 IMF의 잇따른 경고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부국장겸 온라인뉴스부장

페르노리카, 총파업 진짜 이유

기자 수첩
정 은 미
<생활유통부 기자>

위스키 임페리얼로 유명한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직원들이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페르노리카가 2006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업 이유는 노동조합 측과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페르노리카 노사는 12차에 걸쳐 협상을 벌여고 지난 20일 자정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쳤지만 의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8% 임금 인상을, 회사는 1.5%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사측이 노조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비상 임시 총회를 열고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97.1%의 조합원이 참석해 95.4%가 쟁의활동에 찬성했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총 174명이다.

김귀현 페르노리카 노동조합위원장은 "쟁의활동 찬성률이 95.4%나 나올지 상상조차 못했다"면서 "임금 인상도 있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위스키 시장이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임금협상에서 1.5% 수준의 인상률만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사 임원들은 승진과 함께 배당잔치를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도 사측의 성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는 임금협상이 12차까지 진행될 동안 한 번도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권고한 집중교섭 기간에도 약 2주간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간 임금협상은 교섭위원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데에 대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총파업과 같이 경영 손실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대표의 책임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표가 협상에 나서기도 한다.

장 마누엘 스프리에 페르노리카 대표는 무능한 경영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회사의 주인이 임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인사

◇행정자치부 △과장급 전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김희기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노수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 승진 ▷대변인 김흥종 △4급 승진 ▷정조정담당관실 윤유미
◇국립산림과학원 △부처(고위공무원) ▷산림유전자원부장 박광현 △과장급 ▷산림방재연구과장 윤호중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구교상
◇서울메트로 △본부장 전보 ▷고객서비스본부장 이승범 △부처장급 전보 ▷안전조사처장 김상길 ▷경영관리처장 이금수 ▷인사처장 조동수 ▷노사협력처장 오제각 ▷정보관리처장 권지원 ▷영업처장 서간석 ▷도시철도연구원장 윤여경 ▷근무환경연구소장 손계호 ▷인재개발원장 정상익 ▷수서차량사업소장 주돈호
◇폴리스자산운용 △팀장 승진 ▷주식운용1팀장 최원제
◇연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학장 정웅
◇MBC △공익법인 MBC꿈나무축구재단 ▷이사장 박상희 ▷이사 한선일 ▷이사 최창균

부고

▲배준호씨(전 신한은행 근무) 별세, 현철(한미글로벌 이사)·현경(신한은행 하남유산지점장)·현정씨(삼성전자 근무)씨 부친상, 배지민(신목중학교 교사)씨 시부상=21일 12시 발인 23일 오전 6시,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5호, 02-2227-7500
▲임노미씨 별세, 김병률(전 해군법무감)·병근(H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경우(재인사이)·영희(JGC KOREA 경리관리부장)씨 모친상

순풍 탄 '김정태號', 하나-외환 통합 탄력

1분기 호실적 기록·외환노조, 2·17 합의서 수정안 제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리더십에 순풍이 불고 있다.

올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한데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하나금융 1Q 깜짝 실적-상품판매 호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3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94%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그룹의 총자산은 3% 조1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더 늘어났다.

주요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하나은행의 순익은 작년 동기보다 6.5% 감소한 260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통합 관련 일회성 이익 1130억원을 제외할 경우 637억원(32.3%) 증가한 것이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지난 4분기 적자를 기록한 외환은행의 순익은 122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6억원(73.2%) 증가했다.

하나금융 측은 "매매 평가이익 828억원과 삼성자동차 채권 관련 손익 246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박싱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714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성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룹 NIM은 전분기대비 5bp 하락했지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NIM 하락 폭은 3bp에 그치며 상당히 선방했다"며 "양 은행 모두 대기업은 감소시키고 중소기업 대출은 크게 증가시키는 대출포트폴리오 MIX 변화를 통해 대출금리 하락 요인을 완화시켰고, 조달측면에서도 NIM 방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순익 증가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매매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비화폐성환산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논의 재개로 조기통합에 대한 합의 도출 기대감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실질적 통합에 따른 비용시너지 등은 2016년 이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온 상품이 대박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하나·외환은행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대한민국만세 예·적금'을 선보였다.

예·적금은 김정태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개발부터 출시·마케팅까지 공동으로 진행한 작품이다. 이는 출시 9영업일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

◆ 외환노조, 손 내밀었다. "내달 15일 심의 재개"

그동안 쇠어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의 실타래도 조금씩 풀려가는 모양새다.

최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대화단 상견례와 회합을 가지며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이는 올 초 예비인가 등록을 둘러싼 분쟁 이후 석 달만이다.

그간 양 은행의 통합절차와 대화는 서울중앙지법의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용인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3년 연임이 확정되고 법원도 대화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이에 지난 20일에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에 '2.17 합의서'의 수정안도 공식 요청했다. 양측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합의서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환 노조측은 "이번 대화가 자칫 외환·하나은행간 통합에 관한 상호 시각차만 확인하는 가운데 법원용 의식만 보여주기식 협상에 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또 "이번 대화가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2.17합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측에서 과연 2.17 합의서를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합의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며 논의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점도 고려한 제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일단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외환노조 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양측의 대화 결과를 본 후 다음 달 15일 외환노조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낸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미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현대건설 새 브랜드 론칭…2인자 벗어나나

업계 만형 불구 '힐스테이트' 2인자 신세
고급 이미지 강화해 자존심 회복 기대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부문에서는 2인자 신세를 면치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내달 초 기존 '힐스테이트' 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고, 고급 이미지를 강화키로 했다. 새 브랜드를 통해 리딩 건설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년째 시공능력평가순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대건설이지만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의 가치는 유독 낮게 평가되고 있다.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회사인 브랜드스탁이 아파트 부문 연간 브랜드가치평가지수(BSTI)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위 현재 '힐스테이트'는 5위에 올라 있다. 그 위로는 ▲래미안 ▲푸르지오 ▲e편한세상 ▲자이가 이름을 올렸고 ▲롯데캐슬 ▲아이파크가 랭크됐다.

이중 '래미안'은 BSTI 외에도 아파트 브랜드 가치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17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13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1년 연속 1위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능력 1위를 기록한 것은 불과 지난해의 일이다. 그 전에는 현대건설이 5년 연속 1위였다.

브랜드 파워의 차이는 청약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3년 현대건설·삼성물산간 맞대결로 화제를 모은 위례신도시 분양대전에서 힐스테이트는 평균 11.03대 1, 최고 3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래미안은 평균 27.46대 1, 최고 379대 1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지금 같지 않았고 위례신도시도 공급 초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며 "삼성물산은 성공하고 현대건설은 실패할까, 또 함께 성공하더라도 청약률이 큰 차이를 보일까 분양팀이 전전긍긍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힐스테이트 섬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강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약진과 맞물리며 현대건설만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건설은 이번 새 브랜드 론칭으로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반포동 삼호가든3차를 시작으로 올해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굵직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를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래미안', 'e편한세상(아크로리버)', '자이', '아이파크' 등에 밀려 강남권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 왔던 터라 새 브랜드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도 이번 프리미엄 브랜드 성공 여부가 다른 건설사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급 아파트 브랜드 시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대건설과 같이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힐스테이트가 강남에서 약했던 것은 브랜드보다는 마케팅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기 위해 상품을 만든다면 힐스테이트는 만들었으니까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부터 팔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도입할지 고민한 아파트와 일단 지어놓고 파는 아파트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공력이 뒷받침된다면 브랜드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욱기자 wook@

기업은행 'IBK-COOP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 기업 협동조합 전용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인 'IBK-COOP(협동조합)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조합원 수와 추가거래 등에 따라 최대 0.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농협은행, '행복설계' 봄호 발행

NH농협은행은 21일 노후설계 정보 간행물인 '행복설계' 2015년 봄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매 분기마다 발행되는 '행복설계'는 금융상품과 부동산, 세금 같은 재무적 정보와 함께 귀농·귀촌, 가족관계, 여행 등 은퇴설계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돼 전 연령층의 은퇴준비를 돕는 책자다.

이번 봄호에는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과 연금수령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 행복한 커플 최영락·정현숙 부부가 들려주는 '발품 팔고 공부하며 준비하는 은퇴'와 편퇴 인생을 위한 '유망 일자리 3선', 기준금리 1%시대 재테크 전략도 담고 있다. /박미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간서훈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0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라00105)

현대해상 + 하이카, 자보점유율 20% 넘을까

지난해 양사 통합 점유율 전년보다 0.5%p ↑
상반기 내 조직 정비하면 상승세 이어갈 수도

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통합 결정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지난해 원수보험료 기준 자보 점유율은 16.5%다. 이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경쟁사인 삼성화재(0.1%포인트 ↓), 동부화재(0.5%포인트 ↑), LIG손해보험(0.4% ↑)보다도 표심적은 기록했다.

이 기간 흡수 통합을 추진 중인 현대하이카도 3.3%의 점유율을 기록해 양사의 통합 점유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19.8%에 달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2005년 현대하이카 출범 이후 지난 2010년에는 통합 자보 점유율 20%를 목표로 했다.

현대하이카가 본격적인 영업을 실시하기 전인 2005년 현대해상의 자보 점유율은 14.9%였다.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위인 삼성화재(28.7%)와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던 것.

현대하이카 출범 이후에는 다소 점유율을 끌어올렸지만 목표치인 20%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양사의 통합 점유율은 지난 2009년 18.1%를 기록한 이후 2010년(18.5%), 2011년(18.4%), 2012년(18.4%), 2013년(19%) 등 18%대에 생계돼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해상은 오는 6월 예정돼 있는 현대하이카 통합으로 점유율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현대하이카는 통합으로

(현대해상 제공)

재정건전성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대하이카는 지난 2013년 9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지회사인 현대C&R, 현대HDS,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을 통해 각각 100억원씩 후순위차입을 실시했고, 지난 2월에는 15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현재 128.4%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수준(15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통합이 완료되면 현대하이카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현대해상의 RBC비율은 177.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해상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이점이다.

현대해상에서도 전문적인 온라인다이렉트 보험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하이카가 온라인다이렉트 전업사였기 때문에 현대해상과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빠른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합을 하게 되면 현대하이카의 경우 자동차 비즈니스에 지속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하지 않고 현대해상에서도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며 "자보시장에서 통합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현대해상·하이카 자보 점유율

년도	원수보험료(하이카)	통합 점유율(현대해상)
2014년	2,237,[illegible]	19.[illegible](16.[illegible])
2013년	1,[illegible]	19.0(15.[illegible])
2012년	1,[illegible]	18.4(15.[illegible])
2011년	2,[illegible]	18.4(15.[illegible])
2010년	1,[illegible]	18.5(15.5)
2009년	1,[illegible]	18.1(14.[illegible])
2005년 (하이카 출범 전)	1,[illegible]	14.9

자료=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점유율(%) 2013년회계 기준 4월~12월

비좁아진 점포… 기기들 어쩌나
가락시장 현대화에 상인들 울상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하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임대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시장은 54만3720㎡ 부지에 총면적이 26만1737㎡에 이르는 대형 종합도매시장이다.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85년 개장했다. 낙후된 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도소매 미분리 등을 이유로 2009년 현대화 사업 1단계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가락시장 현대화 시설

그러나 임대상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도리어 상인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어 논란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점포의 크기다. 새로 지어지는 판매동은 기존 점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작다. 서울시 공사 측은 애초에 기존 점포와 동일한 면적의 점포를 새 판매동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달랐다.

축산시장의 한 상인은 "기존에는 사방으로 길이 있었지만 현대화 시설은 바둑판식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가게를 둘 곳이 없어졌다"며 "기존 평수 그대로 가도 실내에 가세를 두면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사실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상인은 "축산업 점포 권장기준이 7평인데 4~5평에서 1평 수준의 더 작은 곳으로 가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상인들은 공사 측에서 "좁은 점포로 불만이라면 점포들끼리 합병을 하라"며 '이주 자리 선정 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합병과 동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특정 기간 합병 신청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은 내부 상인들 간 점포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와 농수산식품공사 담당자는 "합병 유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복층 건물이다 보니 층별 배치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임대료 비율의 면 면적은 보장하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하 1층에는 물건 운반차량이 출입하지 못해 해당 층을 배정받은 청과시장 임대상인들은 공정하지 못한 자리 분배라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장 내 상인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화 시설로의 이주를 포기하고 떠나는 임대상인들로 시장은 한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편 가락시장 현대화 시설 점포 입주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5월께 공사홈페이지에 입주 관련 공고가 공지될 계획이다. /김정현기자 [illegible]

NH농협생명 기두 캠페인 실시 NH농협생명은 21일 서울 서대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신상품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김용복(왼쪽에서 세번째) 대표와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신상품 소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NH농협생명 제공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 0.12%↑, 3년 만에 상승세

1% 초저금리시대에 진입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는 0.12%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2012년 1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0.10%)과 경기(0.24%)에서 매매가격이 올랐다. 인천(-0.45%)은 청라지구의 일부 단지에서 할인분양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출시됐던 매물가격이 조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0.62%)와 부산(0.20%)의 오피스텔 매매가가 상승했다.

월세도 전 분기(-0.12%) 대비 0.19%포인트 상승해 0.07%의 변동률을 보였다. 2014년 2분기 이후 약 1년 만에 하락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경기(0.16%), 인천(0.03%), 서울(0.02%)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구(-0.21%)와 경남(-0.03%)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은 0.48% 상승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분기 5.78%를 나타내며 전 분기(5.81%) 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기준금리 1%와 비교할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4%), 경기(5.79%), 서울(5.35%) 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제주(10.79%), 대전(7.42%), 광주(7.23%), 대구(6.23%), 부산(5.89%) 순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월세수입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현기자

4천만원대 투자로 나만의 '별장'과 '수익'도 누려라

누구나 한번쯤 꿈꾸던 개인별장을 소유하고 임대수익까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

"수익안심보장제도"

2014 한경 주거문화 대상 호텔&리조트 부문 대상 수상

타 지역 라마다호텔 대비 반값 분양가 투자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 화제

강원도 태백에서 이미 준공된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가 파격적 분양가와 투자안정성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이미 준공되어 준공리스크가 없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격은 9,500만원대, 대출시 실투자금은 4천만원대라 소액투자자에게 부담이 없으며 최근 분양된 타 지역 라마다호텔 분양가격의 절반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도금 납부 시 8%의 수익을 즉시 지급한다.

기존 분양형 호텔은 운영사가 호텔 운영비를 제외한 뒤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 투자자가 호텔 운영 수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강원라마다호텔 & 리조트는 공신력을 갖춘 신탁회사에서 직접 수익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10년간 연 12%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4%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5년 후에는 원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환매가 가능한 조건이다.

라마다를 대표하는 상위브랜드

수익형 분양 호텔 중에 가장 돋보이는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라마다이다. 라마다는 전 세계 66개국 약 7,380개의 호텔을 운영, 세계 최다 호텔을 보유한 글로벌 호텔그룹 윈덤그룹의 브랜드로, 전 세계 모든 항공사와 연계된 예약시스템구축을 통한 뛰어난 경쟁력, 체계적 시스템과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유명하다.

믿을 수 있는 운영사가 중요

호텔 운영은 라마다 한국 공식 에이전시 산하HM이 직접 운영해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로 투자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산하HM 운영사는 국내 약 50여개 호텔을 운영 및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업계최초로 공신력을 갖춘 부동산신탁에서 운영수입금을 관리해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증명하고 있다.

호텔관계자는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정선과 태백의 천만 수요를 자랑하는 레저관광지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 합리적인 분양가격 대비 호텔의 평균 숙박료도 저렴하게 책정돼, 단체관광의 특성화 호텔로 국내외 여행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며, 방문 시 사전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좋은 조망과 좋은 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문의: 02-776-2000

분양형 호텔도 강원도가 대세 "연 1000만 수요"를 사실상 독점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뭉칫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호텔 객실분양 투자상품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약 50여 개의 신축 호텔들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반면 강원도는 분양형 호텔이 없어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도 연간 1,200만 명을 넘어 제주도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강원도는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성수기가 아니어도 호텔 예약률이 높아 호텔 사업의 최적지라는 평을 얻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 이후 평창, 강릉, 정선 등의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혜는 물론 개발호재가 잇따라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림픽 특구사업, 개발호재까지 합쳐져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단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비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관련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

강원도 관광객 수

'꽃할배' 효과… 여행株 덩달아 들썩

여행株, 연일 신고가 경신 3분기까지 실적개선 지속

꽃피는 봄 4월, 나들이의 계절이다. 가족 혹은 연인과 봄나들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주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행주들이 유류할증료 인하와 엔화 유로화 약세 등으로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여행업종 대표주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인터파크 주가는 연초 대비 각각 62%, 54%, 3%씩 상승했다. 특히 패키지 여행 사업자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절대적인 이익에 두 회사의 주가가 가장 높았던 지난 2007년보다 훨씬 좋다"며 "순이익 기준으로 하나투어는 2007년 269억원에서 2015년 542억원으로 늘고, 모두투어는 같은 기간 114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봄꽃 나무 나눔' 시민 을 찾은 시민들이 화분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연구원은 "1분기 하나투어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5% 증가한 162억원, 모두투어는 96.3% 늘어난 59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실적 개선은 세월호 기저 효과가 있는 3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여행주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세월호 아픔을 딛고 올해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케이블TV에서 방영중인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시즌3'도 여행주 호재에 한 몫하고 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의 송출객수가 지난해 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모두투어의 경우 패키지 고객 증가와 티켓 판매 급증으로 지난해보다 송출객수가 31%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다음 달은 휴가가 분산되는 석가탄신일 연휴 등에 단거리 여행이어 등이 막판까지 몰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도 해외여행 수요 강세가 지속돼 패키지와 티켓 판매부문에서 동반 성장을 보이는 상위업체의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여행주가 날아오르자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목표가를 종전 13만원과 3만6000원에서 16만2000원과 5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기존보다 각각 25%, 32% 올린 셈이다.

NH투자증권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인터파크INT 등 여행 3개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목표가는 각각 15만원과 4만6000원으로 올렸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대해 "3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져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 목표가는 각각 16만5000원, 4만7000원으로 상향했다.

/김민지기자 mind@metroseoul.co.kr

한껏 달아오른 부동산… 관련주도 '후끈'

건설 호황, 매매 활성화에 가구·인테리어 주가 상승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관련업계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림산업은 전일대비 2500원(3.05%) 상승한 8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포스코건설은 보합 마감했다. 코스피의 소폭 하락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은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4분기 5조1344억원의 매출액을 냈다. 당기순이익도 556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 늘었다. 대우건설은 직전분기 2조6775억원의 매출액을 적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90억원, 4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신규 부동산 공급 증가와 매매 활성화에 가구·인테리어 업체도 신이 났다.

가구업체 1위인 한샘의 주가는 올들어 지속적으로 올라 21일 현재 연초대비 6% 상승한 19만55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에는 장중 한때 21만1000원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가구·주방기기를 제조하는 현대리바트도 지난 15일 4만60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다시 썼다.

건축자재와 욕실관련 상품을 제조하는 대림B&Co도 14일 1만99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림B&Co는 직전분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342억원, 25억원 달성해 흑자로 돌아섰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한샘은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 업체로 앞으로의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며 목표주가를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샘의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로 관련업체들이 향후 2~3년간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

하이투자證, ELS 등 3종 150억 규모 공모

하이투자증권(사장 서태환)은 오는 22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 DLS 1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781호는 KOSPI200 지수,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ELS 782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DLS 61호는 WTI 최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3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D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3개월, 6개월) 이상이면 최대 3.15%(연 6.30%)의 수익을 지급한다.

/김보배기자

대법 "ELS 종가 조작 불법… 집단소송 허가"

2005년 도입 후 첫 허용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ELS 시세조작 피해자 양모씨 등이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대표 당사자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해당 ELS를 취득한 후 수동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 한화증권의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 투자자들은 2012년 해당 ELS 위탁 계좌를 담당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만기상환금의 지급 회피를 피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ELS 상품은 지난 2008년 한화증권에서 투자자 437명에게 68억원 어치를 판매됐다.

문제는 만기 기준일에 발생했다. 이들은 "RBC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때물을 만기 기준일에 대량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해당 ELS 보유 투자자들의 주장을 안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한국투자證, 세이프존 ELS 5819회 모집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3일까지 S&P5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 세이프존 ELS 5819회를 총 50억 한도로 모집한다.

세이프존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2012년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던 상품으로 녹인(Knock-In, 손실구간)이 발생하더라도 만기시 녹인(Knock-In) 이상이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만기는 3년으로 조기(만기)상환 관측은 매 6개월마다 주가지수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18개월, 24개월, 만기) 이상이면 연 7.80% 수익이 달성된다. 만약 만기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투자기간 중 녹인(Knock-In) 가격인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23.40%(연 7.80%)의 수익이 지급되며, 하락한 적이 있어도 만기에 녹인(Knock-In) 가격 이상시 투자원금이 보장된다.

이태원 DS부 부장은 "세이프존 ELS는 만기 주가지수가 녹인(Knock-In) 가격 이상일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으로 지금처럼 주가가 높을 때에는 안정성을 높인 ELS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1분기 영업익 7312억

매출 15조1009억원… 작년보다 2.2%↓
고부가가치 판매 증가 실적 개선 기여

철강업계의 계속되는 불황기조 속에서 포스코가 올해 1분기 비교적 선방한 실적으로 출발했다.

포스코는 올해 1분기 매출 15조1009억원, 영업이익 7312억원, 당기순이익 3697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2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줄어든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7312억원과 동일했다.

지난해와 같은 영업이익에 매출은 조금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은 4.7%에서 4.8%로 0.1%포인트 올라갔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4.5% 증가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전 분기 대비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4.3% 줄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규모다.

단독기준으로 포스코는 1분기 매출 6조7876억원, 영업이익 6217억원, 당기순이익 4997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 줄고 영업이익은 20.1%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345.1% 증가했다.

단독기준 포스코의 1분기 실적은 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0%, 1.6% 줄고 당기순이익은 93.2% 늘어난 규모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객 지향의 솔루션마케팅이 효과를 내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증가해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비핵심자산 매각과 저수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호전된 것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온도조절장치용 정밀관의 STS 강 내재 세계 최초 취성균열정지판(BCA) 보증 후판 공급, 차량용 경량 신소재인 마그네슘 판넬 개발 등 솔루션마케팅을 통한 제품 판매량은 1분기 46만5천t으로 전기 대비 9% 증가했다.

사측은 연결기준 실적에 대해 "해외철강 부문과 건설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판매 확대와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한화, 고양국제꽃博 개막축하 불꽃쇼

한화(대표이사 심경섭)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23일 오후 8시 15분부터 20분간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축하 불꽃쇼를 연출한다.

불꽃쇼는 일산 호수공원 및 호수공원 인근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불꽃쇼 관람 명당으로는 호수공원 내 폭포광장, 한울광장 주변, 장미원 주변, 팔각정, 아랫말산 및 호수공원 인근 노래하는 분수대, 정발산 정상이 꼽힌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23일 오전 9시부터 불꽃쇼가 끝날 때까지 일산 호수교부터 신인장 전시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화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야외전시장과 일산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600년 역사의 도시 고양, 1000만 시민의 도시 고양, 문화와 신한류의 도시 고양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불꽃쇼를 연출한다.

음악과 레이저, 조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선보인다고 사측은 전했다.

1964년 불꽃사업을 시작해 올해로 52년째 이어가고 있는 한화는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불꽃프로그램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불꽃발사기술을 개발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프랑스 '인터마트(Intermat)'의 현대중공업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굴삭기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重, 차세대 굴삭기로 유럽시장 공략

佛 국제건설기계전 참가 친환경·고성능 27종 전시

현대중공업이 최신 장비를 내세워 유럽의 건설장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건설기계전시회 '인터마트(Intermat 2015)'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인터마트는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중 하나다. 올해는 총 21만㎡(약 6만4000평) 규모의 전시장에 전 세계 1345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총 7300㎡(약 2200평) 규모의 실내·외 대형 부스에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 총 29종의 장비를 전시했다. 특히 차세대 HX(Hyundai Excavator)시리즈 굴삭기 6종(22t~52t급)과 HL(Hyundai Loader) 휠로더 2종(197~222마력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HX시리즈 굴삭기는 가장 높은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Tier4 final'을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을 장착해 배기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장비 대비 10분의 1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동력제어 기술(IPC=Intelligent Power Control)을 적용해 연료 소모량도 기존 9시리즈 대비 8~12% 줄였다. 에코게이지를 비롯해 지면 형상에 따라 붐(Boom-굴삭기 팔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 플로팅 모드 등 다양한 편의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HL 휠로더 2종도 Tier4 final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기존 모델보다 7~10% 이상 연비효율을 높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신형 굴삭기 모델의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친환경 건설장비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미기자 ___

현대차, 30대 고객 수입차 비교시승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30대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차와 수입차를 2박 3일간 비교 시승하는 이벤트를 전국 7개 비교시승센터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24차수에 걸쳐 30대 고객 336명을 선정해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30대(만 30~39세) 고객은 친구, 가족 등과 함께 2인 1조로 시승조를 구성해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통해 6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각 시승센터 별 운영 가능한 차종(▲올 뉴 투싼과 폭스바겐 티구안 ▲제네시스와 BMW 520d, 528i, 벤츠 E300 ▲i30와 폭스바겐 골프)과 희망 시승일을 선택하면 된다.

현대차는 매월 마지막 주에 익월 당첨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당첨된 고객에게는 2박 3일간의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이정필기자

LG 'G4' 카메라, 美전문사진가 "DSLR 등급"

LG전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문사진가 콜비 브라운이 직접 G4 카메라로 촬영하고 느낀 점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21일 공개했다.

콜비 브라운은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전문사진가로 풍경, 인물 사진을 주로 촬영한다.

공개된 영상 속 콜비 브라운은 G4 카메라의 주요 기능 세 가지와 직접 G4로 촬영한 사진을 소개한다.

G4에는 어둠에 강한 F1.8 조리개가 탑재됐다. 콜비 브라운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할 때는 단 F0.1의 조리개 값 차이도 중요하다"며 G4 카메라의 조리개 값이 실제 DSLR 카메라 렌즈에서 쓰이는 조리개 값과 동급임을 설명한다.

G4의 특수 센서는 촬영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인지하고 정확한 색감을 잡아낸다.

또한 수동모드로 G4 화면에서 셔터스피드, 손떨림보정기능(OIS), 화이트밸런스를 조절해 빛과 색을 조절해 촬영하는 모습이 소개됐다. 콜비 브라운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을 전했다. /정은미기자 euni71@

동반성장위 "대기업 중고차매매 편법 몰랐다"

영세 중고차업자 나몰라라 본지 보도 보고 상황 파악

대기업 진입 규제 유명무실 글로비스, 중고차 고속잠식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분야의 대기업 진입 규제가 유명무실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벨 등 대기업의 '내 차 팔기 프로그램'에 대해 21일 동반성장 위원회측은 본지에 이날 보도된 <현대글로비스, 상생법 변칙 중고차 사업확대> 기사를 보고서야 중고차 시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를 만든 목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감시하라는 것인데 수수방관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벨 서비스가) 소매제한규정을 변칙적으로 활용한 상황이 맞니"면서도 "동반위는 기업과 소매자간의 최종 판매만 규제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다.

동반위는 자동차매매업을 2013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고차시장에서 대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는 오토벨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매입은 직접 하되 판매는 경매를 통함으로써 소매제한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동반위는 오토벨 서비스가 소매제한규정을 변칙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중소 중고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공식적인 민원이 신고된 바 없어 조사까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이 보호를 받는 최대 기간은 6년(최초 3년+재지정 3년)이다.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의 경우 2016년 2월까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반위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지 않을 경우 현대글로비스 등의 중고차매매 시장 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양소리기자 Ilsoun@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KT백석빌딩에서 열린 'KT 소프트웨어 오픈랩' 개소식에 참석한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이상은 소장, KT 경영기획부문장 이문환 전무,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 강도현 과장 등 참석자들이 소프트웨어 검증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KT 제공

KT, 중기 SW 역량 강화 지원

소프트웨어 오픈랩 개소

KT는 모든 기기들의 지능화 추세에 발맞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내장비 내장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를 개발 단계부터 검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오픈랩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소한 오픈랩은 2014년부터 KT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협력사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향상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제품개발 원가 중 소프트웨어 비중은 가전제품이 53.7%, 통신장비는 52.7%에 달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KT의 소프트웨어 검증랩 오픈식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은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소장과 중소 협력사 대표들이 KT경영기획부문장 및 구매협력실장과 함께 참석해 오픈랩 개소를 축하하고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은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소장은 "국산 SW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과 단계별 검증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KT의 소프트웨어 검증 랩이 통신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SW중심 글로벌 동반성장의 성공적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

대우인터 1분기 영업익 1108억 기록 72% 껑충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효과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2% 증가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이 1108억3300만원이라고 21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액은 4조5255억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53억3900만원으로 225.9% 급증했다.

이익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해 미얀마 가스전 생산량이 최대 수준에 도달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대우인터내셔널은 설명했다. /송정훈기자 sh@

현대차, 중동시장 공략 잰걸음

두바이서 전세계 대리점 대회 6000개 전시장 고급과 전략

현대자동차가 중동 시장에서 자리매김한다. 현대차는 20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두바이에서 '2015년 전세계 대리점 대회'를 연다. 현대차 측은 중동에서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두바이를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를 향한 제도약'을 주제로 한 '2015 전세계 대리점 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 현대차 해외영업본부와 해외법인, 지역본부 임직원과 전세계 대리점 사장단 등 총 120개국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올해 해외시장에서 총 436만대(해외생산분 포함)를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대자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상품-판매전략을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유례 없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리점 사장단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목표 달성과 중장기 판매 전략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투싼

현대차는 대회 첫째날 2014년 우수 지역 딜러를 시상하고 둘째날부터는 모던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글로벌 마케팅 전략, 고성능·고인비 상품 운영 계획, 친환경차 개발 계획, 고객만족 혁신 영업 전략, 전세계 대리점 고급화 계획 등 중장기 사업전략을 대리점 사장단과 공유했다.

2020년 연비 25% 향상 로드맵, 친환경차 투자 확대,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계획 등을 전세계 대리점 사장단과 공유해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강조했다.

전세계 대리점에 현대차의 새로운 딜러시설 기준인 '글로벌 딜러십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적용해 2018년까지 6000여개 자량 전시장과 고객 서비스 시설을 고급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경제석학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를 초청해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자동차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실시했다. 마지막날에는 '중동 지역 특성 이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개최지를 두바이로 선정한 것은 중동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Ilsoun@

G4 예약하면 노트북이! LGU+ 예약가입 이벤트

LG유플러스는 22일부터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LG G4'의 예약가입 이벤트와 함께 100명의 콘텐츠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LG G4 예약가입 신청은 전국 LG유플러스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개통은 29일부터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예약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LG 휘센 에어컨, 10명에게 Bose 블루투스 스피커, 30명에게 LG포켓포토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LG G4를 LG유플러스로 선택한 이유를 개인 SNS로 공유하면 된다.

콘텐츠 콘테스트는 참여방식은 LG유플러스와 G4의 만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촬영사진, 일러스트, 웹툰, 동영상 등 포트폴리오를 2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contest@directorscompany.c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LG유플러스 매장에서 한 남성이 LG G4 예약판매 이벤트를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이렇게 선발된 100명에게 LG G4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후기를 제출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LG OLED UHD TV과 LG그램 노트북 등을 제공한다. /정문경기자

대우인터, 다목적함 건조 3자 MOU

페루 국영조선소와 체결
4000만 달러 규모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전병일)은 21일 전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KOTRA(사장 김재홍), 페루 SIMA국영조선소(대표 에두아르도 노보아 몽헤)와 다목적함(LPD) 건조사업 3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페루 SIMA국영조선소에 선박 설계도면 및 기자재 패키지 공급 등 LPD건조 관련 정부 요청사항에 협력하고 KOTRA는 페루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과 원활한 이행을 돕는다.

이번 페루 다목적함 건조사업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약 4000만 달러로 대우인터내셔널은 페루 SIMA국영조선소와 올해 상반기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하반기 중 선박 건조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KOTRA의 정부간 협상력을 기반으로 일궈낸 해외 프로젝트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페루뿐만 아니라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LPD함의 추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페루는 한국의 지구반대편에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 열곱 번째로 맺은 FTA국가로 지난 2012년 300대의 지능형 순찰차와 2013년 1차 다목적함 수출을 KOTRA가 페루에서 대우인터내셔널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페루 SIMA국영조선소는 해군소속이지만 페루 정부의 대부분의 선박을 관리하며 사실상 페루 정부조선소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페루는 SIMA국영조선소를 국가 종합 조선소로 대형화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LPD 거래로 한국 조선기자재로 한국기술을 배운 페루 조선인력이 새롭게 양성돼 양국간 조선업 협력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KOTRA, 페루 SIMA국영조선소와 다목적함 건조사업 3자 MOU를 체결했다. 이날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오른쪽), 김재홍 코트라 사장, SIMA국영조선소 에두아르도 노보아 몽헤가 대표가 자리에 함께 했다. /대우인터내셔널 제공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국내 대선조선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으로 건조되는 이번 LPD함은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긴급구호물자 수송, 병원선 등으로 사용돼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이 잦은 페루에서 한국 조선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한국 최초로 페루 내무부향으로 지능형 순찰차 300대를 공급하고 올해도 약 1억불 상당의 지능형 순찰차 추가 공급 계약을 추진하며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은영기자 eun@metroseoul.co.kr

쌍용자 송영한 국내영업본부장(앞줄 가운데)과 쌍용차 우수딜러들이 상하이모터쇼 쌍용차 전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차, 中 공략 영업맨 역량 키운다

우수 영업사원 '상하이 모터쇼' 참관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우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2015 상하이모터쇼' 참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지난해 우수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영업사원과 영업소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중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현황 파악을 위해 모터쇼 현장 참관은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영업사원들은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진출한 쌍용자동차의 경쟁력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한편 글로벌 경쟁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 넓은 안목과 견문을 익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7.9% 증가한 6만 9036대를 판매해 5년 연속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 쌍용차 측은 코란도 시리즈 등 모델들의 높은 제품경쟁력과 더불어 판매 네트워크를 적극적인 확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출시 후 젊고 참신한 영업인력 보강을 위해 지난 3월 오토 매니저를 공개모집했다. 현재 183개인 영업소 개수를 201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함으로써 판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소리기자

"IoT시대, 서비스시장 성장 대응"

김대훈 LG CNS 사장
엔트루월드 2015 기조연설

김대훈(사진) LG CNS 사장이 21일 열린 IT콘퍼런스 '엔트루월드 2015'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날 김 사장은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로의 사물인터넷(IoT)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IoT가 가져올 미래상을 제시했다.

LG CNS는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업계 및 학계 주요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IT콘퍼런스 '엔트루월드 201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인영사를 통해 "올해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조연결 기술,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의 총화인 IoT가 어떻게 산업에 적용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 사례와 솔루션을 보여줄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여 "급격히 성장하는 IoT 시장에서 디바이스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서비스 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비스 중심의 IoT를 강조했다.

/채신화기자 csh0108@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모든 직책 사퇴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사진) 두산중공업 회장은 21일 최근 중앙대와 관련해 벌어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최근 중앙대와 관련해 벌어진 사태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학내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학생 단체를 사칭한 현수막을 내걸도록 보직 교수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는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막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받았다. /양소리기자 11sound@

공항·면세점·카지노 10분 거리… 수익률 12%

제주도 '골든튤립제주노형호텔' 분양

전용 23~28㎡ 352실 규모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

제주 노형동 917-2번지 일원에 루브르호텔그룹의 상위 클래스 브랜드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이 공급된다. 지하 4층 지상 18층 전용면적 23~28㎡ 352실 규모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루브르호텔그룹은 유럽 최고의 호텔그룹이다. 전 세계 50개국에 걸쳐 1200여 개의 호텔과 9만 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5만5000명의 고객이 다녀간다.

이 같은 루브르호텔그룹의 명성을 이을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은 한라산과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객실과 스카이풀, 스파, 루프탑바 등의 최고급 시설을 갖춘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제주공항과 제주항이 차량 8분 거리이고, 신라면세점은 도보 1분 거리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바이젠거리도 걸어서 3~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영화관, 제주도청 등의 편의시설과 관공서도 반경 1km 이내다.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이 호텔운영수익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운영사가 실투자금 대비 확정수익률 12%를 5년간 보장한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스위트룸 외에도 소형 면적까지 다양한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금 5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초기 투자금 부담이 적다. 개별 등기를 통해 객실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계약자에게는 연간 10일간 호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주 왕복항공권 2매와 특급호텔 숙박권(1박), 골프라운딩권(1팀)도 제공된다.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투시도.

제주도 내 최상위 건설업체 경림종합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았다. 경림종합건설은 서귀포 비스타케이 1, 2차를 시공한 바 있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4번지 진영빌딩 2층에 있다. 준공은 2017년 2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2-760-1800

/박선옥기자 pso1820@

이마트노조, 국가인권위에 '반인권행위' 진정

"소지품검사 조항 수정, 다시 신체수색 시도 인격권·존엄성 무시…예비절도자로 간주"

이마트 노동조합(위원장 전수찬·이하 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사진) 이마트(대표 김해성·이갑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조 측은 또 이마트가 노동자를 향한 반인권행위를 반성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합리적 보상을 할 때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이마트 노조 측은 "최근 이마트가 소지품검사 조항을 수정해 다시 사원들 소지품검사와 신체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반 사기업인 이마트에서 자신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히 무시하며 예비절도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중동점에서 발생한 사원락커 무단수색 및 물품압수 사건으로 노동자를 향한 반인권행위가 드러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마트는 직원 소지품검사뿐만 아니라 퇴근시 가방검사, 출산휴가시 업무인계 부여, CCTV를 이용한 직원사찰 등의 행위를 했다. 사원들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보안직원들이 여성 사원들의 가방을 검사했으며, 사물함도 불시 점검을 해 개인물품을 무단 폐기했다. 개인물품 중에는 생리대도 포함돼 해당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불법사찰에 이용된 이마트 취업규칙 제 47조 소지품검사에 관한 조항은 노조 측의 삭제 요구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조항을 수정해 또 다시 사원들 소지품 검사와 신체수색을 시도하려 하고 있어 이마트 노조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마트의 직원 소지품검사 사건이 드러난 후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김해성 이마트 경영총괄부문 대표,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조항을 삭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이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마트 노조 측은 "최근 이마트는 2년 전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 형을 위장한 최병렬 전 대표이사가 이마트 상근고문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윤명규 전 인사상무가 신세계 계열사 위드미FS 대표이사로 승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용진 부회장과 경영진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지 의혹에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이마트의 인사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을 신세계그룹 홍보팀 관계자들이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장윤희기자 news@metroseoul.co.kr

농협유통 20주년 창사기념 대축제 농협유통은 창사 20주년을 맞아 양재점, 창동점 등 전국 24개 하나로클럽·마트에서 23일부터 5월7일까지 2000여개 품목을 최대 60%까지 할인판매하는 창사기념 대축제를 연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창사기념 대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능경영 책임 직원들에게 전가"

페르노리카 총파업 결의 사측 비상근무체제 돌입

위스키 임페리얼 등 수입·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은 21일 서울 본사 나라빌딩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페르노리카 김귀현 노동조합위원장은 "장 마누엘 스프리에(사진) 대표 부임이후 4년간 페르노리카는 경쟁업체에게 여러모로 뒤지고 있다"며 "무능 경영은 대표가 책임져야함에도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노동조합위원장은 "장 마누엘 사장은 제왕적 대표로 늘 거만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우리를 무심히 대했다"며 "회사의 주인은 우리 노동자인 만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동자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자정까지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조는 8% 임금 인상을, 회사는 1.5%를 고집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자정까지 노사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조정안을 못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몇 년간 1.5%의 임금인상을 진행했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호봉제로 인한 자연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3.7%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날 노조의 파업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장, 본부장급은 물론 비정규직 직원을 대체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총 174명으로 전체 직원의 66%에 달한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따라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협상테이블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fun@

LG생건, 1분기 영업익 39.1% ↑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1분기 화장품 사업을 비롯해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사상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은 1분기 매출 1조3019억원, 영업이익 1755억원, 당기순이익 1244억원을 달성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4%, 39.1%, 37.6% 성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2005년 3분기 이후 39분기 연속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05년 1분기 이후 40분기 증가했다.

화장품 사업의 경우 분기 영업이익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109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64% 성장했다. 매출은 34.5% 증가한 61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40%였던 화장품부문 매출 비중은 47%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2%에서 61%로 확대됐다.

면세점 채널과 프레스티지 매출이 성장에 견인한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유수정기자 ku@

'맥스' 크림生 올몰트로 리뉴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국내 최초 올몰트 맥주인 맥스를 신제품 수준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맥스를 디자인 제품 콘셉트뿐만 아니라 원료를 강화하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 크림生 올몰트 맥스(맥스)로 리뉴얼해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80년 양조기술 노하우를 집약해 맥스가 세계적인 맥주들과 견줄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원료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드러운 크림 거품과 살균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는 비열처리공법으로 병맥주와 캔맥주에서도 맥주 본연의 살아있도록 맛을 구현했다.

신현성 대표, 티몬 경영권 인수

티켓몬스터(티몬) 신현성(사진) 대표가 그루폰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재인수했다.

티몬은 글로벌 투자회사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이하 KKR) 투자회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 그리고 현 최고경영자인 신현성 대표가 그루폰으로부터 경영권지분을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모회사였던 그루폰은 41%의 지분을 KKR과 앵커에쿼티파트너스 각각 23%씩, 신 대표는 13%를 갖게 됐다. 티몬의 기업가치는 약 8600억원으로 평가 받았다.

이사회는 신 대표를 포함한 티몬 경영진, KKR,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각각 2인씩 총 6명을 선임하고 그루폰에서 1인을 추가해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이번 지분 인수로 티몬의 주요 주주가 됐으며, 오너 경영자로써 티몬을 공격적으로 이끌어겠다는 계획이다.

KKR과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국내 온라인 커머스 1위 기업이 되겠다는 티몬의 비전에 공감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분 인수와 동시에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 파빌리온 캐피탈(Pavilion Capital) 등 다수의 해외 연기금과 국부투자 기관들이 직접 인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의 모바일커머스 시장과 티몬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KKR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기자 21cinfun@

일보다 사람…복지혜택 넘버원 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 사내 어린이집.

7년마다 임직원 안식년 휴가… 재입사제 운영·오후 5시 퇴근 캠페인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지난 2012년 창사 30주년을 맞아 파격적인 복리 후생 제도인 임직원 안식년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 근속 년수가 7년이 되는 직원은 2주, 14년인 직원은 한달 간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 지원금으로 미혼자 300만원, 기혼자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내결혼을 한 커플의 경우 1000만원의 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개인 연차까지 활용한다면 평균 한달 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1년 중 한 달을 쉬면서 휴가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것은 이랜드가 국내 기업중 처음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회사에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의미로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안식년 휴가기간 동안에 직원들의 삶의 질 함상과 글로벌 견문을 넓히고자 가족과 함께 적극 해외 여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또 임신·출산 여직원을 대상으로 모성 보호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사내 건강 증진실에 수유시설을 설치하고, 모유 수유교육을 진행하는 등 여성 직원들이 사회인 어머니로서 두 역할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산과 신촌 이랜드 사옥에서는 현재 코코몽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촌 사옥의 어린이집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그 밖에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회식이나 접대 없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번 이랜드인은 영원한 이랜드인"

이랜드그룹은 지난 1999년부터 재입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MF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직해야 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들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들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입사할 수 있다. 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이랜드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재입사 제도를 통해 다시 이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랜드그룹은 퇴직한 직원들이 쌓은 외부 지식이 기업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채용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재 수 백명이 이 제도를 통해 회사로 복귀했으며, 이들 중 70%는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함으로써 재입사로 인한 불이익 우려도 불식시켰다.

◆ "저녁에 있는 가정"

이랜드그룹은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해 '5시 퇴근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디자이너들의 야근 없애기 프로젝트로 시작됐다가 점차 전 사업부로 확대돼 현재는 전 직원 5시 정시 퇴근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랜드그룹 가산 사옥에는 오후 5시가 되면 퇴근 준비를 위한 사내 안내 방송과 음악이 나오며, 이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사옥 전체가 일괄 소등에 들어간다. 야근을 하려면 개인이 직접 야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시 퇴근 캠페인은 실제로 야근을 해도 효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한 제도다. 정시 퇴근 문화의 정착으로 오히려 업무시간 내 집중도가 향상됐으며 업무의 효율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사무실 내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 또 공식적으로 술회식을 금지하고 있어 근무시간 이후에는 술자리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다.

/정은미기자 21cindia@metroseoul.co.kr

이랜드그룹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임직원 안식년 휴가제도	7년마다 한 달 쉬며 최대 1000만원 휴가비 지원
어린이집, 수유시설 설치	가산·신촌 사옥에 코코몽 캐릭터 활용 어린이집 운영, 모유수유 교육
재입사제도 운영	1999년부터 시행, 수백명이 복귀해 과장급 이상 승진 근무
오후 5시 퇴근 캠페인	오후 5~7시 사옥 전체 일괄 소등
높은 여성임원 비율	과장급 이상 45%, 임원 28%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여성이 경쟁력"…과장급 이상 45%, 임원 28%가 女

'여성장교 채용전형' 실시 등 女비율 확대

이랜드그룹은 남성과의 차별 없는 승진 기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환경,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재입사 제도 등이 갖춰져 있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랜드그룹의 과장급 이상 여성 직원의 비율은 45%, 여성임원의 비율은 28%다. 여성임원 비율은 2012년 25%, 2013년 26%, 2014년 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원 10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이 5% 수준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그룹 내 과장급 이상 관리자 2명 중 1명은 여성 직원으로, 여성인력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주요 부서에 여성임원이 포진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경쟁력을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여겨왔던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의 지론 때문이다. 패션과 유통 다수의 외식브랜드를 보유한 이랜드그룹의 이용 고객 70%가 여성인 만큼 여성의 안목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박성수 회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 역시 여성이 더 뛰어나고 어머니 같은 여성 관리자들은 오히려 남성보다 더 프로페셔널하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패션사업 부문의 이랜드월드와 유통사업 부문의 이랜드리테일에서 '여성장교 채용전형'을 새롭게 실시했다. 여성 고객의 감성을 이해하고,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성 인재의 비율을 더욱 늘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교 출신자의 강점인 리더십과 관리자로서의 훈련된 역량을 통해 이랜드그룹은 향후 여성 리더를 더 많이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a@

여행의 계절, 무료여행 기회잡아라

한국관광公, 관광주간 행사

한국관광공사는 2015 봄 관광주간(5월 1일 ~ 14일)을 맞이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에서 1박 2일 무료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고 싶은 여행코스 선택하면 총 500명에게 1박 2일 여행 선물

여행 계획은 있지만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면, 봄 여행을 떠나자 이벤트에 응모하자. 이번 이벤트는 봄 관광주간 홈페이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중 가보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고, 이를 선택한 이유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등 당첨자 500명에게는 동반 1인을 포함 5월 8~9일까지 1박 2일의 여행기회가 제공된다. 2등 20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 3등 10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오는 26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다.

◆관광주간 홍보물 인증샷 올리면 다양한 여행상품권 증정

2015 봄 관광주간의 홍보물 인증샷을 올리면 호텔숙박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관광주간 널리 알리고 봄 여행 떠나보세!'도 놓칠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 봄 관광주간의 TVC나 포스터 등 다양한 관광주간 홍보물 인증샷을 올린 후 경품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베키니아호텔 숙박권 10만원권(30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품권 5만원권(50명),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50명), 주유권 3만원권(50명),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50명),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300명) 등 총 530명에게 여행관련 상품권을 증정한다. 내달 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내달 7일에 확인할 수 있다.

◆ 내가 가본 2015 한국관광 100선 가본 지역 표시하면 상품권 제공

국내 여행을 즐겨했던 국민이라면 '내가 가본 2015 한국관광 100선' 이벤트에 주목해보자. 새롭게 선정된 2015 한국관광 100선 중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관광지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베니키아숙박권 10만원권(10명),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100명), 한국관광 100선 따라가기 리플렛(100명)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한국관광 100선 이벤트는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5월 15일에 발표된다.

/최치선기자

동국제약 "산행정보 앱 설치하세요"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지난 18일 진행한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13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에서 산행 조난 시 유용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탐방객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사를 펼쳤다.

21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가야산, 무등산 등 전국 국립공원 10여개 탐방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각 지역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동국제약 OTC(일반의약품)사업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산행안전 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기된 국립공원 지도를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안전한 산행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한 긴급구조 요청과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담긴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는 홍보행사도 진행해 현장 탐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털진드기 및 야생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의 체험존을 마련해 등산객들의 진드기 매개질환(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18일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13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벌이며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기기 상생 앞장

내일 세미나… 공동개발 논의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이기섭)과 함께 23일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김옥길홀에서 '제11회 의료기기 상생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병원 현장의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의 시용 사례 및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국내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국산 의료기기 개발 및 성공사례' 세션에서는 ▲이레나 이대목동병원 의료기기 중점연구단장이 '저피용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및 상용화' ▲조도상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경추 추간공 확장기 개발 및 기술이전' ▲이사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임상 경험을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 및 특허출원 사례' ▲김윤근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이 '체외진단 U-health Platform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의료기기 인허가 및 투자 전략' 세션에서는 ▲오현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및 관리 현황' ▲이범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 수석연구원이 '오송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의 의료기기개발 전 임상시험 지원' ▲고성수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상무가 '바이오산업 투자동향(의료기기/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CMN, 뷰티시장 변화를 꿰뚫는다

24일 '화장품 마케팅 세미나'

마케팅 전문신문인 주간신문 CMN이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제14회 화장품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린다. 글로벌 조사 전문기업 칸타 월드패널 코리아가 올해도 함께한다.

이날 환경, 소비자 등 변화 속에서 뷰티에 주목해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칸타 월드패널 아시아 CEO인 마시 코우(Marcy Kou)가 뷰티 디스커버리(Beauty Discovery)'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며 이어 강이화 APAC Regional Beauty Director가 '뷰티 시장의 재발견'을 주제로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김지원 칸타 월드패널 코리아 수석부장이 국내 뉴노멀 소비자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CMN 웹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3만3000원이다.

/김수정기자

지난해 열린 제13회 화장품 마케팅 세미나 현장 /CMN 제공

"뱃살 걱정, 강강술래가 도와드려요"

길벗도서 '하루에 한 동작 뱃살'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뱃살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도서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도서출판 길벗의 서적 '하루에 한 동작 뱃살'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끝나가는 글로벌 마케팅부터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난 작은 기업 마케팅까지 56가지 성공사례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케팅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마케팅 성공사례 상식사전'도 추첨을 통해 준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su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서는 한우불고기(1kg)와 한돈양념구이(750g)로 구성된 실맞이 캠핑세트를 44% 할인된 4만3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를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럭키A세트(모짜렐라돈가스1.44kg+찰찰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4만5600원)와 럭키B세트(등돈심돈가스1.44kg+찰찰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4만2000원)도 4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김보라기자

세계 유명 와인 알뜰구매 하세요

스탠포드호텔 '와인장터'

삼암동에 위치한 특급호텔 스탠포드호텔이 오는 29일까지 스탠포드호텔 입구에서 '제3회 와인장터' 행사를 개최한다.

와인장터 행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것으로 100여 종의 프랑스, 칠레,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유명한 와인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는 현장 판매와 인터넷 예약 판매로 진행된다. 현장 판매는 대중들에게 선호도가 좋은 가격대별 인기 와인 30종을 선별해 40%까지 할인하고, 인터넷 예약 판매는 호텔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드라이 스파클링 와인의 넘버원인 '벤첼 트로켄(375ml)'을 1만6000원에,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만찬와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뷰 바넌 레세르바 말벡(2012)'을 2만원에,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산 '까비암카 브라케토 다퀴(2013)'와 '까비암카 모스카토(2013)'를 각각 3만원에 판매한다.

와인 현장 판매 고객에게는 럭키드로우 행사가 마련돼 고급 프리미엄 와인, 소믈리에 전용 와인 스크류, 스탠포드호텔 숙박권 및 뷔페식사권 등을 제공한다.

/정윤기자

"마블 퓨처파이트, 모바일 RPG시장 톱10 목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글로벌 공략 '신호탄'

"모바일 액션 RPG의 결정체 '마블 퓨처파이트'로 글로벌 시장 공략의 첫 신호탄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겠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왕십리CGV에서 모바일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마블 퓨처파이트' 출시를 위한 미디어쇼케이스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마블 퓨처파이트'에 등장하는 영웅들과 함께 글로벌 게임시장 공략에 나선다. 권 대표는 "마블 퓨처파이트는 모바일게임 성공 노하우를 갖춘 넷마블이 마블의 영웅을 활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마블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있고, 모바일 RPG 시장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모든 국가에서 '톱10'에 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마블 퓨처파이트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마블의 캐릭터(36종)가 등장한다. 다양한 캐릭터 중 3종을 선택해 한 팀을 구성한 뒤, 캐릭터별 기술, 방어구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악당을 물리치는 '스테이지 모드'와 PVE(이용자와 컴퓨터 간 대결), PVP(이용자 간 대결) 등 모드로 구성됐다. 모바일 RPG '몬스터 길들이기'를 개발한 넷마블몬스터가 제작했다.

마블 퓨처파이트는 오는 30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한다. 이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중국 출시 일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호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소프트런칭해 사전 테스트를 마쳤다. 소프트런칭 결과 모든 지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과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는 전 세계 지사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도 계획 중이다. 두 회사의 지사들이 협력해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는 것. 우선 국내에서는 상영관 광고를 활용해 게임 홍보에 나선다.

본격적인 글로벌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한지훈 넷마블 본부장은 "그동안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마블 IP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마블 퓨처파이트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 흥행은 마블 퓨처파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어벤져스2는 각종 매체의 호평에 힘입어 관객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실시간 예매율에 따르면 어벤져스2의 예매관객수는 62만명에 달한다. 점유율은 93.6%, 매출은 63억원이다.

/정문경기자 hmk1018@metroseoul.co.kr

'나비' 쫓는 '카카오'

택시 콜 서비스, 마케팅전쟁 불꽃

#10년째 택시를 운행하고 박원묵(54)씨는 기존에 이용했던 콜 서비스 장비를 떼어냈다. 대신 스마트폰에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 박 씨는 "손님이 많이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SK나비콜이나 동부엔콜을 이용했던 기사들이 절반으로 줄어들다"며 "기존업체 이용시 일 1~2건 정도였지만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뒤로 평균 3건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근 택시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카카오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라고 택시기사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카카오가 지난달 31일 출시한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의 성장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콜택시 서비스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던 SK플래닛의 콜택시 서비스 '나비콜'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단기간의 성과라 더욱 위협적이다.

21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택시'가 출시 한달만에 회원수 4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택시 23만여대 다. 이중 기존의 나비콜 등 콜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만 300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급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을 인터뷰한결과 10대 중 7대 가량은 카카오택시를 이용자였다. 150여대의 택시를 보유한 삼신운수는 최근 직원들에게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신운수 소속 택시기사 박종군(47)씨는 "대부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앱은 택시 기사들이 평소 생각했던 서비스가 현실화된 서비스"라며 "콜을 받으면 승객들이 택시 기사 정보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기사는 손님의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과거 SK나비콜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박 씨는 "콜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주지만 매달 4만원의 비용과 콜비(1000원)의 절반을 회사에 지불해야했고, 콜이 들어왔는데 교대시간과 겹치면서 거부할 경우 업체에게 패널티를 받았다. 갑의 횡포나 다름없었다"고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이에 SK플래닛은 뒤늦게 위기의식을 갖고 대대적인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기사 B씨는 "요즘 나비콜 직원들이 카카오택시 때문에 회사에 찾아와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SK플래닛도 이날 'T맵 택시' 승객용 앱을 출시했지만 카카오택시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카카오택시는 3700만명의 국내 가입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T맵 택시'는 1800만 가입자를 갖고 있다. SK플래닛의 내비게이션 'T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매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지불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서비스 초기 단계라 대중화 쪽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초반임에도 택시기사와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카카오택시'가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문경기자

삼성·LG 잇단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왜?

재료비·인건비 절감 지리적 이점도 갖춰

국내 전자업계가 가격 경쟁력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베트남으로 몰려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베트남 흥이옌 공장을 설립했다. 올해로 LG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 20주년이 된다.

지난달 27일 LG전자는 흥이엔과 하이퐁 생산공장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쯔엉 떤상 베트남 국가주석, 전대주 주베트남 한국대사,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이퐁 캠퍼스에서는 TV, 휴대폰,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등을 생산한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하이퐁 캠퍼스 내에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증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성 옌퐁공단과 타이응웬성 옌빈공단 등 2곳에서 휴대폰을 생산 중이며 현지 호치민에 생활가전(CE)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기는 2013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 타이응웬성 옌빈공장에서 올초부터 연성회로기판(FPCB)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주기판(HDI)과 카메라모듈(CSM)의 경우 설비가 들어오고 있는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베트남에서 열린 LG전자 하이퐁 캠퍼스 준공식에서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삼성전기 관계자는 "베트남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며 "공장이 (삼성)전자와 인접해 물류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2~3년 사이에 삼성·LG 등 전자업계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외국계 기업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동현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과장은 "베트남의 임금이 중국의 1/3 수준이다"며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가 인접해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오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기 좋은 물류 환경이다"고 전했다.

또한 베트남은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나 FTA 등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묶여 미국, 일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

전자 업계들이 베트남에 모이면서 집적효과를 통해 물류 조달 등에서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박인세 씨 예때도 전자업계가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이유 중 하나다.

/황은정기자

방통위 '정보보호 소홀' 배달앱 과징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던 음식배달 전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방통위가 배달앱 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조치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모두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문경기자

청순 버리고 엉뚱하고 섹시하게

영화 '장수상회' 황우슬혜

2008년 황우슬혜(35)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영화계에 등장했다. 데뷔작이었던 '미쓰 홍당무'에서 청순함 속에 엉뚱함을 간직한 러시아어 교사로 눈도장을 찍은 그녀는 흥행작 '과속스캔들'에 이어 박찬욱 감독의 '박쥐'까지 연이어 출연하며 충무로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시작부터 탄탄대로를 달렸던 그녀의 행보는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 점점 더디어졌다. 드라마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지만 데뷔 초만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소속사 문제로 활동을 잠시 쉬어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황우슬혜는 묵묵히 연기 연습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날을 기다렸다. '장수상회'(감독 강제규)가 바로 그 기회였다.

70대 노년에게 찾아온 로맨스를 그린 '장수상회'에서 황우슬혜는 성칠(박근형)과 금님(윤여정)의 로맨스를 응원하는 박양을 연기했다. 다방 레지면서 동시에 중국집 배달부이기도 한 박양은 장수마트의 사장 장수(조진웅)에게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영화에 유쾌함을 더하는 활력소 같은 존재다. 그동안 청순한 모습으로 각인됐던 황우슬혜가 보여주는 뜻밖의 변신이다.

"출연 이유요? 당연히 강제규 감독님 작품이라서 했어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와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저에게 제안한 건가 싶을 정도였죠."

황우슬혜는 극중 박양을 "전설의 미친X"이라고 소개했다. "원래 설정이 그랬어요(웃음). 영화에서는 편집됐지만 문신도 있었거든요." 다른 작품에서도 그랬듯 황우슬혜는 이번 영화에서도 박양의 전사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며 캐릭터에 빠져들었다. 다방 레지로서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 나오도록 커피를 타는 것도 일일이 연습했을 정도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주로 조용하고 차분한 역할을 맡아왔지만 실제 황우슬혜의 성격은 무척 털털한 편이다. 그래서 박양의 솔직하고 엉뚱한 면을 연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대신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배꼽티나 힐 같은 거 잘 입지도 신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 전부터 연기 연습하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런 의상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장수상회'는 황우슬혜에게 엉뚱함과 섹시함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이미지를 선사했다.

다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박양의 캐릭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편집됐기 때문이다. 박양이 왜 장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장수의 딸 아영(문가영)의 갈등이 어떻게 생겼고 극복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한 걸그룹 씨스타의 춤도 완성된 영화에는 실리지 않았다. 황우슬혜는 "박양이 나오는 장면이 다 담겼다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더 편집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예계에서는 주목을 받아야 살아남는다. 데뷔 초반 받았던 큰 주목에 비하면 지금 황우슬혜가 받고 있는 관심은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배우로서는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황우슬혜는 "연기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서 힘들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작품이 없을 때는 연기 연습실을 다니면서 해보지 않았던 역할에 도전하면서 열심히 연기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다. "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는 말에 연기에 대한 욕심이 담겨 있다.

'장수상회'를 마친 뒤 황우슬혜는 연기에 더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다. "옛날에는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어요. '장수상회' 첫 촬영을 앞두고는 긴장한 나머지 잠도 잘 못 잤죠.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캐릭터라 긴장감도 높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한결같이 연기하는 것, 그것이 배우 황우슬혜의 꿈이자 목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 나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차곡차곡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작품에는 또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려고 해요(웃음)."

전에 해본적 없는 다방레지 역
배꼽티 입고 커피 타기 연습도
작품 없을때도 늘 연기 연습
한결같이 연기하는 것이 꿈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제훈)

star bag

영화 '간신' 연기 대결

신인 배우 임지연·이유영이 영화 '간신'으로 연기대결을 펼친다. 임지연은 지난해 영화 '인간중독', 이유영은 영화 '봄'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임지연은 '간신'에서 1만여 싸인 단희, 이유영은 조선 최고의 명기로 꼽히는 설중매 역을 맡았다. 다음달 개봉 예정.

부산 방화 피해 현장 방문

그룹 인피니트 성종이 20일 부산 사상구 방화 범죄 피해 장소를 찾아 자원 봉사자들과 현장을 치우는 봉사 활동을 했다. 담당자는 성종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성종은 앞으로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와 함께 봉사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내달 단독콘서트 개최

브라운아이드소울 정엽이 다음달 21일~25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단독콘서트 '바비어 발렌타인'을 개최한다. 정엽은 지난해 음악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올 상반기 컴백을 목표로 정규 3집 작업에 매진해 왔다. 예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

새 소속사와 전속 계약

배우 한정우가 스타스토리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한정우는 영화, 연극, 드라마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소속사 측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배우다. 앞으로 더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우는 최근 중국에서 방송 되는 현대자동차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아이돌 여동생 그룹 몰려온다

레드벨벳·러블리즈·CLC 등 줄줄이 데뷔
차별화 전략 시도… 선배 그늘 가릴 수도

가요계에 여동생들이 등장했다. 최근 여러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신인 걸그룹을 배출하며 소속 아이돌 그룹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 이 신예들은 같은 소속사 선배 가수의 '여동생'으로 불리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의 레드벨벳은 선배 걸그룹 에프엑스와 달리 4인조로 출발했지만 최근 새 멤버 예리를 영입해 에프엑스처럼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소나무와 씨엘씨(CLC)는 언니 그룹과는 다른 느낌으로 팬들을 공략하고 있다.

소나무는 시크릿의 여동생 그룹이지만 섹시함으로 무장한 시크릿과 차별을 꾀했다. 많은 이들이 소나무가 청순 콘셉트로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데뷔곡 '데자부'는 걸스힙합이었다.

지난 3월 데뷔한 CLC 역시 소속사 선배 포미닛과는 180도 다른 느낌이다. 포미닛이 최근 '미쳐'로 센 언니' 이미지에 쐐기를 박았다면 CLC는 데뷔곡 '페페(PEPE)'를 통해 귀엽고 솔직한 10대 소녀의 마음을 노래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미쓰에이(Miss A)의 뒤를 이을 신인 걸그룹을 준비 중이다. 미쓰에이 이후 약 5년 만에 걸그룹을 선보이게 된 JYP는 '식스틴' 프로젝트를 통해 멤버를 선발할 예정이다.

'식스틴'은 신인 걸그룹 후보생 7명과 이 자리를 쟁취하려는 연습생 9명의 대결을 통해 데뷔 멤버를 결정짓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엠넷에서 방송된다. 현재 팀명, 멤버 수, 콘셉트, 데뷔 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빅뱅·위너·아이콘·몬스타엑스 등 보이그룹 서바이벌은 많았지만 걸그룹 서바이벌은 최초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JYP는 다음달 5일 '식스틴' 첫 방송에 앞서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후보생 연습생 16인을 차례로 공개 중이다.

모벽을 둔 여동생들도 있다. 러블리즈와 오마이걸이다.

오마이걸은 보이그룹 B1A4의 후배로 20일에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이다. 이들은 생애 첫 무대였던 데뷔 쇼케이스에서 안정된 퍼포먼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러블리즈는 인피니트 모벽들의 동생다운 '칼군무'를 선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 출연해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 안무를 완벽히 재현하기도 했다.

많은 걸그룹들이 여동생이란 타이틀 덕분에 다른 신인들에 비해 더 많은 주목을 받지만, 반대로 족쇄가 되기도 한다. 선배 가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저 여동생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여동생이란 이름표를 떼어내고 홀로 비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해교 기자 lam@metroseoul.co.kr

임수정·유연석의 '은밀한 유혹'

'시크릿' 윤재구 감독 신작 6월 4일 개봉 확정

임수정, 유연석 주연의 범죄 멜로 영화 '은밀한 유혹'(감독 윤재구)이 오는 6월 4일 개봉을 확정했다.

'은밀한 유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자 지연(임수정)과 그런 지연에게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제안을 하는 남자 성열(유연석)의 위험한 거래를 다룬 영화다.

'내 아내의 모든 것'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오는 임수정과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출연 이후 스크린에서 맹활약 중인 유연석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는 두 배우 사이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암시해 궁금증을 갖게 한다.

또한 1차 예고편은 성열이 지연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는 분위기를 암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를 예고했다. '세븐 데이즈'의 각본을 쓰고 '시크릿'을 연출한 윤재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 기자

박정현 6월 단독콘서트 서울·대구·부산 릴레이

가수 박정현이 오는 6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정현은 6월 12~14일, 19~21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단독 콘서트 '아이 엠 유 아 미(I AM YOU ARE ME)'를 연다.

이번 공연은 대구와 부산에서도 열린다. 대구 공연은 6월 27~28일 경북대 대강당, 부산공연은 7월 11~12일 KBS 부산홀에서 진행된다.

앞서 박정현은 한 인터뷰를 통해 "내게 '노래한다'는 의미는 라이브 무대에 서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노래하는 가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김지민 기자 langkim@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반짝이는' 삶

film review

■ 반짝이는 박수 소리

장애를 지닌 이들의 삶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쉽게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는 장애를 지닌 이들의 세상도 그렇지 않은 이들의 세상만큼 환하다고 이야기한다.

영화를 연출한 이길보라 감독은 청각 장애를 지닌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들리지 않는 세상'과 이들 바깥의 '들리는 세상' 사이에서 남들과는 다른 고민과 갈등을 겪으며 자라났다. 두 세상 사이의 간극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장애를 '들리는 세상'에 설명해야만 했다. 때로는 부모의 통역사 역할까지 맡으면서 남들보다 빨리 어른의 세계를 마주하기도 했다.

영화의 출발은 바로 부모의 '들리지 않는 세상'을 세상에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길보라 감

청각 장애 부모 둔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

독은 부모의 첫 만남부터 결혼 과정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과 남동생이 태어난 뒤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든다. 그의 부모는 카메라 앞에서 입술이 아닌 손으로 자신들의 삶을 진술하게 털어놓는다. 귀가 들리지 않기에 더욱 힘겹게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부터 IMF와 함께 찾아왔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까지의 과정 등 한 가족의 소박한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이야기는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부모의 세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순간 이길보라 감독은 카메라의 방향을 부모가 아닌 자신과 남동생을 향해 튼다.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인도 여행을 떠난 감독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대안 학교를 선택해 부모의 곁을 떠났던 동생의 이야기에는 이 두 가지 세상 사이의 간극을 견뎌내지 못한 이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부모를 바라봄으로써 이 두 가지 세계가 다를 것이 없음을 발견한다. "하지만 두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와 동생,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세계는 그렇게 반짝인다는 것을"이라는 감독의 고백에는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이 담겨 있다. 삶은 장애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체 관람가. 4월 23일 개봉.

5월 LG '천군만마' 뜬다

류제국 2군 실전등판 합격투 · 우규민도 복귀 카운트다운

LG 트윈스가 5월 '천군만마'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류제국(32)이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군 복귀전을 치렀다.

류제국은 21일 경기도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상무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직구 위주 피칭으로 35구를 던지며 3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직구 최고 구속은 139km였다.

2군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친 류제국은 "무릎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해 10kg을 감량했다. 지금 몸 상태는 80%다"며 "오늘 직구 위주로 던졌다. 첫 경기다 보니까 직구 밸런스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구 구속이 안나온 것에 대해 "5개월 만의 등판이니 구속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직구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던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좋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류제국은 앞으로 2차례 더 2군 경기에 나선 뒤 5월 초 1군에 복귀할 예정이다.

류제국과 비슷한 시기에 왼쪽 고관절 물혹 제거수술을 받았던 우규민(30)도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류제국보다 1군 복귀가 빠를 것으로 보였던 우규민은 시범경기 막판 갑작스럽게 통증이 재발해 가벼운 캐치볼만 하는 수준이다. 조만간 2군 경기에 나서 실전 감각을 익힐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5월 중순 1군 복귀가 가능하다.

지난해 토종 원투펀치를 형성했던 우규민과 류제국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LG는 그나마 임정우(24)와 임지섭(20)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 4월을 버텨가고 있다.

임정우는 지난 12일 두산전 선발로 나서 4⅓이닝 5피안타 3볼넷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디딤돌을 놓았다. 이어 18일 SK전에서는 5이닝 6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비록 역전패를 당해 그의 승리는 날라갔지만 양상문 감독을 흐뭇하게 했다.

임지섭 역시 16일 KIA전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6피안타 4볼넷 7탈삼진 4실점으로 팀 승리를 거들었다.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LG는 류제국과 우규민이 차례로 복귀하는 5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기세다.

/김민준기자 m kim@metroseoul.co.kr

보즈니아키와 결별한 매킬로이 두살 연상 PGA 여직원과 열애설

테니스 스타 캐럴라인 보즈니아키와 지난해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던 남자골프 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26)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직원과 교제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21일(한국시간) "매킬로이가 마스터스 대회를 마친 뒤 지난주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를 찾아 PGA 직원인 에리카 스톨이라는 여성과 만났다"며 "매킬로이보다 2살 연상인 스톨은 2012년 10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라이더컵에서 처음 매킬로이와 인연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유럽 대표로 출전한 매킬로이는 원래 오전 11시25분인 경기 시작 시간을 낮 12시25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경기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매킬로이가 대회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스톨은 매킬로이 측에 이를 알렸고, 결국 매킬로이는 경찰 에스코트를 받은 끝에 가까스로 티오프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당시 매킬로이는 보즈니아키와 교제 중이었다.

미국 지역신문인 데모크라트 앤드 크로니클 역시 "매킬로이가 스톨과 함께 지난 주말 시간을 함께했다"며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한 식당 관계자들을 만나 "매킬로이를 봤다"는 다수의 증언도 덧붙였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매킬로이가 로체스터까지 가서 스톨을 만난 것은 대단히 좋은 신호"라고 지적했다. /김현준기자

매킬로이가 보즈니아키와 사귈 당시의 다정한 모습

8일만에 선발 강정호 몸 굳었나

3타수 무안타 실책까지

8일 만에 선발출전한 강정호(28 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하고 실책까지 범했다.

강정호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8번타자 겸 유격수로 나섰다. 전날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가 번트를 시도하다 투수의 공에 가슴을 맞아 통증을 느끼면서 휴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2회말 첫 타석에서 시카고 선발 제이크 아리에타의 시속 140km짜리 고속 슬라이더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5회와 7회에는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160에서 0.077(13타수 1안타)로 더 떨어졌다.

수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선보였지만 실책 한 개가 아쉬웠다. 4회초 무사 1루 상황에서 스탈린 카스트로의 땅볼을 잡아 유격수에서 2루로 송구하다 실책을 범했다.

피츠버그는 컵스에 2-5로 패했다. /서장훈기자

김세영 랭킹 16위 '점층'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2 미래에셋-사진)이 세계여자골프랭킹 16위로 뛰어올랐다.

김세영은 21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4.39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했다. 그는 지난 19일 미국 하와이에서 끝난 롯데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연장전에서 극적인 이글로 박인비(27 KB금융그룹)를 꺾고 우승했다.

박인비는 10.08점을 받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3위(9.86)로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10.77점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지켰고, 김효주(20-롯데)는 4위(6.29점)에 자리했다.

/김민준기자

아시안컵 부상 이청용 복귀 임박

"실전 훈련 완전소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에 활약하는 이청용(26 사진)이 복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청용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사우스 런던'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주 처음 훈련을 완전 소화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며 "정강이뼈에 통증은 느끼지 않는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의 마지막 4~5게임에서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곧 복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청용은 21세 이하(U-21)팀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21일과 24일 열리는 잘던 U-21팀과의 경기에 출전할 계획이다.

그는 "1군 경기를 뛰기 전에 U-21에서 뛸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용은 지난 1월 아시안컵 대회 오만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강한 태클로 오른쪽 정강이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김현준기자

"'이메일 막말' 박용성 이사장, 협박죄 성립"

'목을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가장 고통스럽게 쳐줄 것'

이사장직 사퇴결정에도 불구하고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74·두산중공업 명예 회장·사진)의 막말 이메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메일 내용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 결과 박 이사장의 이메일 내용은 위압감 조성에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가 다분해서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20여명에게 보낸 박 이사장의 이메일은 비대위 교수들을 직접 협박하는 섬뜩한 문장으로 가득차 있다.

박 이사장은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인사보복을 추진하며 보직 교수들에게 보낸 두산 계정 e메일(****
**@doosan.com)에서 "목을 쳐주겠다"고 언급하며 "인사권을 가진 내가 칼을 쳐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박 이사장은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이사장이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한 후 26일에는 중앙대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 학생공동대책위원회의 성균관대, 인하대 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한 '위기의 한국대학-현 시기 대학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 이사장은 비대위 소속 교수들에 대해 "(교수들을) 악질 노조로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보직교수) 여러분은 아직도 그들을 동료로 생각한다"며 비난했다. 당시 토론회는 행사 시작 2시간 전 학교 측의 장소 대여 취소로 첨거리에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 이사장은 지난달 25일에는 이용구 총장과 재단 임원진에 이메일을 보내 학생 명의로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여러분 대학이나 개혁하세요. 우리는 개혁으로 조인류가 될꺼니까요'라고 쓰였다. 이날 경희대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생들이 중앙대 정문 앞에서 중앙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또다른 이메일에서 중앙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을 수차례에 걸쳐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를 'Bidet(鳥頭비데위)'로, 鳥頭(조두) 등으로 표현했다. 박 이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그들을 꽃가마에 태워 복귀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교수 비대위가 학사구조개편안 찬반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3월 11일에도 "'너희(교수들)가 투표에 참가하면 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보하라"고 메일로 말했다.

이강석 중앙대 교수협의회장은 "보직교수들을 통해 비대위 활동에 본부 측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재단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교수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 교수는 "실제 학교본부로부터 그런 내용의 문서 통보를 받았다"면서 "교수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문제를 차치하고도 재단 이사장이 학교 운영에 개입해 전횡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박 이사장의 e메일은 사무라이식의 논리로 그가 두산그룹과 중앙대의 수장으로서 대학 교수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대 홍보팀 관계자는 "이메일 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확인 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ehisun@metroseoul.co.kr

청보리가 부르는 봄의 노래 봄의 절정에는 늘 청보리가 있다. 21일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유채꽃과 청보리밭 사이에서 봄정취를 즐기고 있다. 청보리밭 축제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신세계 신문강탈' 檢 수사 착수

신세계 이마트 측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을 형사2부의 권상대 검사에게 배정했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 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했다.

이에 시민들이 신세계 이마트 직원 1명을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계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방면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묵인한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 오정석 남대문파출소장,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현경기자 hcbak@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후보자 비난 글 파문

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방조 드러나 자진 사퇴 촉구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국회청문회에서 대법관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의 이지현 팀장(사법감시센터)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자격이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본인만 문제없으면 되는거냐"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또 "처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해서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실 청문회를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 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태섭기자

채동욱 내연녀 2심도 혐의 부인

"가사도우미가 협박"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 외 2명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김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이 오인됐다"며 양형 감면을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3)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임씨가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동 공갈로 함께 기소된 박씨(64)와 조씨(44)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측은 1심에 밝힌 주장과 동일하게 "가사도우미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급히 내보내려 이씨의 요구에 따라 지불증을 작성해줬다"며 "오히려 이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1000만원을 더 주고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서예진기자 bone@